

##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권재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 1.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면서

2014년 7월 25일 낮, 우리 일행은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자리 잡은 주시경 선생 묘소 앞에 섰다. 한강이 뒤로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다. 장마철인데 마침 이 날은 햇살이 가득하다. 우리는 주시경 선생 묘소에 꽃을 바치고 큰절을 두 번 올렸다. 그리고 나서 이은상 선생이 짓고 김충현 선생이 쓴 묘비명을 함께 읽었다.

“한평생 오직 한 길 우리 말글  
키우시니 그 공덕 어디다 비기  
리까. 해달같이 빛나옵니다. 겨  
우 서른 여덟 해 짧은 한 뉘 사시  
는 것을 자가 몸은 돌보지 않고  
겨레 위해 바치신 이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sup>1)</sup>



1) 묘비명은 원문대로 띄어쓰기하였다.

이렇듯 나라 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은 1876년에 태어나 1914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으니, 올해가 바로 돌아가신 지 100돌이 되는 해이다.

주시경 선생은 국어 연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대표 언어학자이다. 그는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국어문법》(1910)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은 국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말 사랑의 실천 정신은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민족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말을 민족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주시경 선생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선생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지닌 학문 태도였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 연구를 언어 과학으로 승화시킨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국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말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깨끗하게 지킨 국어 운동의 실천가였다.

이제 주시경 선생의 우리 말글 사랑의 삶과 학문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과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말글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은, 전적으로 글쓴이에게 주시경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일깨워 준 허용 선생의 글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1980)과 글쓴이의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킨 한헌샘 주시경 선생”(2008)에 바탕을 두고,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여, 고치고 덧붙여서 다시 쓴 글이다.

## 2. 말과 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

선생이 태어나신 1876년은 외세의 침략이 잦아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였고, 농사도 흉작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 음력 11월 7일, 주시경 선생은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무릉골에서 아버지 주학원 님과 어머니 전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 고향에서 서당에 다닐 때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깨달으려 하는 의지가 무척이나 강했다고 한다. 열 살이 넘어 1887년, 주시경 선생은 서울에 사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가게 된다. 서울에 올라와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서당 생활은 열일곱 살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 그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배우려 하는 것은 결국 한문으로 쓰인 뜻, 그 교훈이 아닌가? 말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한문도 결국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어려운 한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는 우리말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저 교훈을 우리말로 적어 놓기만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깨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주시경 선생은 서당 공부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옳지!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이 있고,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이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문만을 글이라고 하고 훈민정음은 돌보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한문은 중국말을 적는 것이 아닌가? 우리말이 중국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며,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눈은 희망에 빛나기 시작하였다.

‘아니,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그 어렵고 배우기 힘든 한자에 비한다면, 훈민정음은 얼마나 알기 쉽고 아름다운가? 그렇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훈민정음을 내가 빛내어 보리라.’

주시경 선생은 이와 같은 우리말과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말과 글자 생활의 바른 길을 열기 시작하였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문 중심의 글자 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길을 비로소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 3. 말글 사랑을 위해 바친 짧은 생애

한문의 마술에서 깨어난 주시경 선생은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험버트 선생과 함께 참여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국문판 조필로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어문법을 공동 연구하였다. 그러는 사이 스물다섯 살 때에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하였다. 신학문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갈망은 계속되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항해술을 배우기도 하고 측량술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영국인 의사에게 영어와 의학을 배우면서 국어를 가르쳤고, 또한 독학으로 기계학, 종교학까지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의 중심이 국어에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는 국어 연구에 골몰하는 한편, 학문 연구는 민중 교화를 실천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민중 교화를 위해 국어의 정리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저한 신념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 안에 국어 강의 시간이나 국어 강습소에 나가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교육에 열중하였는지는, 서른 살을 전후하여 그가 교편을 잡은 학교나 강습소가 무려 스무 곳이나 됨을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서울 시내 각 학교의 국어를 도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교재는 등사판에 인쇄하여 보자기에 싸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의하였다. 당시 학생이었던 김윤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은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신용하 2014 참조).

“그러나 당시 학교로서 든든한 터가 잡힌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선생에게 주는 보수는 박하였고, 그나마 몇 달씩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극히 곤궁한 살림이어서 무명옷을 입고 짚신을 신으면서도 끼니를 곱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창동 그의 사택은 용신하기도 불편한 데다가 햇빛조차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등불을 켜야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강은커녕 지참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다. 사무실로 거치어 올 시간도 없어서 바로 교실로 걸음을 빨리하는 것이 상례였다.”(김윤경)

“건지려던 나라가 이미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백성인 내 겨레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미 없어진 큰 집을 미래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깊고 먼 스승의 포부였으며, 더 간절하고 질긴 스승의 의지였다. 눈물을 머금은 ‘주 보따리’는 예나 다름없이 동대문 연지동에서 서대문 정동으로, 정동에서 박동으로, 박동에서 동관으로 돌아다녔다. 스승은 교단에 서시매,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면서,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을 하셨다. 스승의 교수는 말

가운데 겨레의 혼이 들었고, 또 말 밖에도 나라의 생각이 넘치었다.”

(최현배)

주시경 선생의 학문은 점차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나라의 운명은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다. 그는 원통함의 눈물이 채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민족 갱생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렇지만 일본 침략자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 갔다. 동지들은 하나씩 들쭉 국외로 망명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1914년 서른여덟 살 되던 해, 국외 망명을 결심하고 7월 방학에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에게 하직하고 서울로 돌아와 준비하던 중, 갑자기 체중에 걸려 며칠 후 7월 27일, 내수동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는 품은 포부를 반도 이루지 못하고, 고난과 비분 속에서 고귀한 한 생애를 마쳤다.

짧은 생애를 마치며 주시경 선생은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가 홀로 섬의 특별한 빛이라”는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에 대해 신용하 선생은 지난 5월 한글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신용하 2014 참조).

“주시경 선생이 비록 짧은 기간에 우리 말글 운동에 큰 업적을 낸 사상적 배경에는 ‘민족은 본질적으로 언어 공동체이며, 언어가 흥하면 민족도 흥하고 언어가 소멸되면 민족도 소멸된다’라는 사회학적 사상과, 민족과 국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학문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길은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함에 있고,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이 어떤 나라의 말과 글만 같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갈고 닦아, 기어이 만국과 같아지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단군 이래로 덕정을 베풀던 그 훌륭한 말과 글자를 연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1908), 《국어문법(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가 있다. 그의 국어 연구는 《국어문법》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 전개는 우리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어문법》은 일찍이 그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1893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스물두 살 때인 1898년 12월에 초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이후 다듬고 고쳐 1910년 4월에 발간하였다.

《국어문법》에서는 학술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썼다. 지금 말로 품사를 ‘기’라 하였는데(나중에 ‘씨’로 고침), “기의 갈래 아홉의 이름은 조선어로 만든 것이니, 한자로 만들면 그 문자의 뜻으로만 풀이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 그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기 갈래를 ‘임, 엇, 움, 젓, 잇, 언, 억, 놀, 꺾’이라 하였는데, 지금말로 옮기자면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종결사’이다.

《국어문법》에서 다루는 큰 갈래는 ‘기난갈’과 ‘짬듬갈’이다. 기난 갈의 ‘기’는 낱말, ‘난’은 나눈다, ‘갈’은 연구의 뜻으로 ‘품사분류론’이란 뜻이며, 짬듬갈의 ‘짬’은 짜서 꾸민다, ‘듬’은 말이 구성되는 법의 뜻으로 ‘문장론’이란 뜻이다.

말은 밖으로 나타난 표면구조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결정하는 심층구조가 있다는 것이 변형생성문법 이론인데, 주시경 선생의 문법에서 이러한 이론이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먹는다’란 말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란 것은, 말 밖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말의 환경을 말한다. 그는 이 말의 그림폴이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ㅅ’을 표시하고서 그 자리에 숨은 성분 곧 속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속뜻이 숨어 있다는 설명은 심층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다. 속뜻으로 있는 것이 겉으로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설명 방식 그대로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주시경 선생은 이러한 문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술언어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형태소’가 있다. 일정한 음성 형식과 일정한 의미 형식을 갖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1926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눗씨’라는 개념을 이미 1914년의 《말의 소리》에서 주시경 선생이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로 형태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주시경 선생은 형태소 분석을 철저히 추진해 나간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형태소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맞춤법에 반영하고, 원형을 고정시켜 글 읽기에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



하여 모든 자음 글자를 종성에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주시경 선생의 표기법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 발음대로 적되 형태음소적으로 분철 표기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원리는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으로 이어졌다(송철의 2010 참조). 이를 근본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을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

주시경 선생이 처음 우리말을 연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표기법을 바로 잡으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말의 소리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의 뒷받침이 되는 문법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모든 조건들, 이어받을 만한 학문의 토대가 전혀 없었던 점, 나라 형편이 매우 혼란 상태에 있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갔다는 점, 개인적인 생활이 극도로 가난했다는 점, 그의 학문 활동의 헛수가 그리 길지 못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주시경 선생의 학문적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그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어 교육자로서의 업적,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업적 또한 크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이 시작하였으며, 한글 전용이라는 글자 생활의 새로운 운동도 선생이 실천하였다. 국어 정책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모두 선생이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사에 끼친 공헌과, 우리 문화사에, 민족 투쟁사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000여 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20만 명이 넘어선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가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0위라 한다. 또한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는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이처럼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가?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같아야 한다. 발음이 같아야 하고, 단어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발음으로 말한다든지,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결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쓰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개업식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의 '와중'은 소용돌이 속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바쁘신 중에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친절히 자문해 주었다'에서 '자문하다'는 '묻다'의 뜻이다. 내용으로 보면 '자문한 것에 대해 친절히 응해 주었다', 또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삶에 힘든 애환이 스며 있다'의 '애환'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흔히 슬픔의 뜻으로만 쓰고 있어 혼돈스럽다.

잘못 쓰이는 말이 이것뿐이라. '편집하다'는 신문, 잡지, 책, 영화, 드

라마 등의 본래의 자료에 덧붙이거나 잘라 내거나 또는 차례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방송에서는 잘라 내 없애는 것을 뜻하는 말로만 쓰고 있다. ‘예능’이란 말도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재능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 방송에서는 찡고 까부는 오락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어 본래 뜻의 예능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의 부인을 높여 두루 부르는 말 ‘영부인’도 대통령 영부인을 뜻하는 말로 한정하여 잘못 쓰인지 벌써 삼십 년이 더 지났다. 그래서 영부인이라 하면 으레 대통령 부인만 가리키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학교 시험에서 흔히 듣는 말 ‘컨닝’이란 말의 올바른 영어는 cheating이다. 백화점에 명품 구경 가는 것을 ‘아이쇼핑’이라 하는 것도 올바른 영어는 window shopping일 것이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외치는 한마디, ‘웬샷!’도 Bottoms up이 바른 표현이라 하겠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의 ‘알바’ 역시 독일어 ‘아르바이트’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980년대 중반, 어느 맥주회사에서 직영하는 생맥줏집 이름에 독일어를 썼다. 뜰이나 정원, 마당을 뜻하는 독일어가 바로 호프(Hof)이다. 생맥주를 마시는 뜰, 정원이라는 의미로 ‘생맥주 전문점 오비 호프(OB Hof)’로 이름 붙였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호프(Hof)라 하면 생맥줏집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호프(Hof)는 생맥줏집뿐만 아니라 생맥주 자체를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호프&소주’를 판다고 간판에 써 놓은 집도 많다. 독일어의 정원을 생맥주라 부르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결과이다.

그뿐 아니다. 공공 행정 기관의 언어 사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업사이클’이란 말도 등장한다. ‘리사이클’이 ‘재활용품’이었는데 그것을

‘업(up)’ 시킨다는 뜻이란다. ‘힘내자! 중소기업UP, 공공구매로’라는 어느 행정 기관의 구호는 우리말 표기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미투데이’라는 정책 설명을 대하게 되면 정말 행정 기관의 우리말 사용이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친서민 정책인 ‘농촌 어메니티 체험’, ‘마이크로크레딧’, ‘패스트 트랙(Fast Track)’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맘프러너창업스쿨’이란 용어도 일반 국민이 선뜻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섞어 쓴 일은 없는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섞어 쓴 일은 없는지, 공직자 모두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온갖 가게 이름, 상품 이름, 심지어는 모임 이름, 사람 이름에까지 서양식 이름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영어 정관사 the에 우리말을 덧붙인 혼합 이름이 나타나는가 하면, 연예인 이름을 영문자 한 글자로 지은 경우도 있다. 연예인 이름, 그리고 민간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멀쩡한 이름을 영문자 약자로 앞다투어 고치고 있다. LH, IBK, K-Water처럼 한둘이 아니지만, 외국인도 알아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기를 자꾸 늘려 가야만 할 것인가?

또한 대표적인 공공 언어인 방송 언어도 그러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들인다.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쉽고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방송 언어가 생활의 생생한 언어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해도 언어 예절이 실종되고 막말과 비속어가 일상화된 품격 없는 말을 방송에서

계속하여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청소년에게 이런 언어 환경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언어는 인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언어 사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통신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언어생활이란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작년에 발족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이 기획하고 펼치는 다양한 사업은,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 6.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 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우리말이다.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지켜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말에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방향은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게 쓰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규범적인 발음, 어휘,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이 망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민들이 국어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국어를 지켜 가꾸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길이다.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주시경 선생의 ‘어록비’에 담긴 글, “한나라말”의 한 부분을 옮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 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담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 참고문헌

- 권재일(2008),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킨 한힌샘 주시경 선생, 김태준·소재영 엮음  
《스승》, 31~44, 논형.
- 문화체육관광부(2013),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용하(2014), 주 시경 선생의 애국계몽사상과 한글, 《617돌 세종날 기념 주 시경 선생 100주기 추모 학술대회 논문집》, 7~19, 한글학회.
- 허 응(1986), 주 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허응·박지홍 엮음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 197~306, 과학사.